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세기 중반까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논의는 철학의 입장에서 행해졌지만, 철학의 특성상 오직 인간의 행동과 마음만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빌헬름 분트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최초의 심리학 연구소를 세우고 그 제자인 에드워드 티체너는 ‘구조주의’라는 최초의 심리학 이론을 발표한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이라는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즉, 인간의 심리는 구조주의를 통해 관찰이 가능한 사건이며 어떤 종류의 규칙성을 갖는 것임이 밝혀졌다.

구조주의는 심리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를 세 구성요소로 나누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지각이고, 두 번째 구성요소는 분노,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성요소는 꿈이나 기억 같은 심상이었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각과 감정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인간의 마음이 물질세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마음의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로 ‘내성법(Introspection)’을 사용하였다. 내성법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기억, 지각, 인지 과정, 행동동기 등을 묘사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이처럼 분트는 주관적인 측정과 실험 제어를 통해 정신과 의식의 영역을 보다 구성적인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성법의 실험 참가자들은 메트로놈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고 자신의 감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개인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기보다는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분트는 실험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다양화시켜서 양적연구를 통해 관찰의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성법은 실험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주관에 너무나도 많이 개입한 나머지 내성법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들이 찾으려는 것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즉, 내성법은 과학적 방법론으로써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훗날 행동주의 학파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성법의 한계로 인해, 구조주의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심리학자들은 꾸준히 의식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처럼 빌헬름 분트의 구조주의는 일부 심리학 학파에 연구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심리학의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1.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학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만을 다루기엔 부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과학적인 학문은 관찰을 통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③ 실험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 ④ 행동주의 학파는 실험에서 객관성 확보를 중시한다.
  - ⑤ 구조주의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은 경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중시한다.
2. 윗글의 분트의 입장에서 <보기>의 티체너의 내성법을 비판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에드워드 티체너는 분트의 가르침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 구조주의를 퍼뜨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승인 빌헬름 분트의 내성법을 잘못 전달한다. 티체너는 분트와 달리 내성법을 인간의 심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즉, 티체너는 오로지 심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만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 ① 인간의 의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은 실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 ② 티체너의 내성법은 관찰의 일반성을 확보할 수 없다.
- ③ 지각과 감정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엔 부적절한 방법이다.
- ④ 과학적인 학문의 범주에 벗어나므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 ⑤ 지각과 감각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